

부록

국제안전도시사업의 이해

조준필 소장 jpcho@ajou.ac.kr
아주대학교의료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

안전도시(Safe Communities) 사업은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1회 사고와 손상예방 세계학술대회(First World Conference on Accident and Injury Prevention)'에서 채택된 '모든 인류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국제안전도시 헌장(Manifesto for Safe Communities)을 기초로 한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안전관련 각계각층의 능동적인 참여와 모든 손상분야 및 모든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안전증진사업을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인증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즉, 어떤 지역사회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된다 함은 그 지역사회가 이미 사고(accident)나 손상(injury)이 없는 상태로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는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이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안전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도시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증함을 의미한다.

국제안전도시 공인가관

국제안전도시사업의 공인 주관 기관은 스웨덴 스톡홀름의 카롤린스카연구소(Karolinska Institute)의 산하에 레이프 스반스트롬(Professor Leif Svanström) 교수가 책임을 맡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지역사회안전증진협력센터(WHO Collaborating Center on Community Safety Promotion, WHO CC CSP)로 국제안전도시의 인증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안전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 도시의 안전도시 사업의 지원 및 평가, 공인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각 국가별 혹은 지역별로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세계보건기구 지역사회안전증진 협력센터(WHO CC CSP)와 업무협력을 맺은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들도 운영되고 있다. 2014년 6월 현재 16개국에 21개의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가 지정되어 적극적으로 안전도시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필자가 소장을 맡고 있는 아주대학교의료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가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로 지정되어 국내외의 국제안전도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국제안전도시의 공인기준

안전도시는 아래의 7가지 공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국제안전도시 공인기준

1. 지역공동체에서 안전증진에 책임이 있는 각계 각층으로부터 상호 협력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남성과 여성, 모든 연령,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3. 고위험 연령과 고위험 환경 및 고위험 계층의 안전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4. 활용 가능한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5. 손상의 빈도나 원인을 나타내 보이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6.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수행 과정 및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7. 국내·외적으로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2014년 6월 현재 336개 도시 및 지자체가 국제안전도시 네트워크 공인도시이다.

국제안전도시 사업의 필요성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사고와 이로 인한 손상은 개인에게 미치는 인적, 물적 피해와 함께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세계보건기구 지역사회안전증진 협력센터(WHO CC CSP)는 지역사회 내에서 시민에게 발생하는 손상문제 및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지역 내 손상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유관기관들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사고와 손상을 최소화하는 안전증진사업 등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망과 손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

국제안전도시 사업의 성공요소

손상은 어느 한 부문만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서도 효과적으로 예방될 수 없다. 따라서 연계되어 있는 부문 간 상호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일은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업의 기획 및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일은 사업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관련자들을 참여시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킴으로써 효율적인 목표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안전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안전도시 사업의 성공요소

1.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
2. 지역사회 상호 협력기반 구축
3.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
4. 장기간의 프로그램 수행기간
5. 손상의 빈도와 원인에 대한 주기적 파악
6. 사업에 대한 방향성 설정: 공통된 의제나 목표 설정
7. 현재 사업에 대한 효과성(효율성) 및 사업의 질 평가
8. 기존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9. 사업 수행의 인적 물적 자원 확보
10. 점진적 사업 추진 및 확산 전략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지역사회의 손상빈도와 원인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이 결과를 안전증진 사업 평가의 근거가 되는 지표로 삼을 수 있다. 이때에는 모든 손상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 정보가 되어야 하며, 손상 시기, 손상 장소, 손상 원인, 치료 후 결과 등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가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의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가 다르고, 각 자료마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지역사회의 실정에 적합한 손상감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조준필, 박남수, 2008, 지역사회 안전증진 이론과 실제, 군자출판사
- 지역사회안전증진협력센터 (<http://www.ki.se/csp/>)